현대차 팰리세이드, '북미 올해의 차' 유틸리티 부문 선정

리프·그래비티와 2~3배 격차
"해당 차급의 새로운 기준 제시"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가 '2026 북미 올해의 차'에서 유틸리티 부문에 최종 선정되며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북미 올해의 차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수상 결과를 발표한 후 공식 홈페이지에 부문별 후보 차들의 최종 점수와 심사평을 공개했다. 팰리세이드는 최종 투표 결과 270점을 획득해 2위 닛산 리프(135점)와는 두 배, 3위 루시드 그래비티(85점)와는 세 배 이상의 점수 격차를 기록하며 유틸리티 부문에 선정됐다.

현대차 팰리세이드.

미국과 캐나다의 자동차 전문 기자 50명으로 구성된 북미 올해의 차 심사위원단은 팰리세이드의 가격 대비 뛰어난 가치와 완성도, 상위 차급에 준하는 고급감과 편의 사양을 수상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팰리세이드의 주요 강점으로 꼽혔다. U.S. 뉴스＆월드 리포트 에디터 존 빈센트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은 해당 차급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며 "현재 구매 가능한 최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라고 호평했다.

오토가이드 편집국장 그렉 밀리오레는 "현대차가 추가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연비를 높여 가족 이동에 안성맞춤"이라고 강조했으며, 액시오스 교통 전문 기자 조앤 뮬러 역시 "팰리세이드는 시작 가격이 4만 달러 미만이면서도 새로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추가돼 가치와 기술, 효율성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준다"고 하이브리드 모델을 높이 평가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CJ대한통운, 전시물류 과정 효율화

코엑스와 '엑스박스' 서비스 선봬
국내 첫 AI 기반 전시화물 전용

CJ대한통운이 국내 대표 전시·컨벤션센터 코엑스와 손잡고 전시물류 전 과정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물류체계 구축에 나선다.

CJ대한통운은 코엑스와 함께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전시화물 전용 물류서비스 '엑스박스(ExBox)'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엑스박스는 전시 일정과 규모, 취급품목, 부스 위치정보 등을 반영해 AI기반 자동배차 및 경로 최적화, 밀크런 방식의 집배송 운영 시스템을 구현한 전시물류 전용 서비스다. 밀크런 방식은 한 대의 차량이 여러 업체를 방문해 물품을 수거·배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효율성을 높이고 운행 차량 수와 물류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J대한통운은 전국 약 880여개 물류센터와 290여개 배송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엑스박스 물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코엑스는 전시 주최

지난 20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전시물류 서비스 'ExBox' 공동 추진 업무협약 행사에서 CJ대한통운 최갑주 더운반그룹장(오른쪽)이 코엑스 김동욱 베뉴사업본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제공

측 및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엑스박스 이용을 적극 독려하는 한편 CJ대한통운 더운반그룹과 함께 서비스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코엑스 김동욱 베뉴사업본부장은 "전시물류는 행사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요소"라며 "엑스박스 도입을 계기로 주차혼잡 완화와 함께 전시참가 기업과 방문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장인화, '철강 탈탄소·공급망 협력' 강조

〈포스코그룹 회장〉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참석
포스코 파빌리온 운영해 기술 소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사진)이 지난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이다.

21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장 회장은 22일 열리는 '마이닝 앤 메탈스 거버너스 미팅(Mining & Metals Governors Meeting)'에 참석해 기술 혁신을 통한 철강 탈탄소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미팅에는 세계 주요 철강사와 원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다.

장 회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기조연설에서도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다자간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포스코그룹은 다보스포럼 기간 '포스코파빌리온(POSCO Pavilion)'을 운영해 주요 기업인들과의 비즈니스 미팅을 지원하고,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경쟁력도 소개할 계획이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널담, 지난해 年 매출 330억… 104%↑

〈전년比〉

고물가 속 외식 대신 간편식사 공략
저당·고단백 내세운 식사빵 강화

푸드테크 기업 조인앤조인의 베이커리 브랜드 널담이 고물가·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널담은 2025년 연간 매출 33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실적으로 불과 1년 만에 매출 규모를 두 배 이상 키운 셈이다.

업계에서는 고물가 환경 속에서 외식 대신 집에서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널담은 이 같은 소비 흐름에 맞춰 '식사 대용 빵' 라인업을 강화하며 성장을 이끌었다.

실제 널담은 기존 디저트 중심 제품군에서 벗어나 저당·고단백을 내세운 식사빵 제품군을 확장했다. 대표 제품인 뚱카롱, 베이글·쿠키류가 안정적인 매출 기반 역할을 한 가운데, 최근 선보인 고단백·저당 신제품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했다. 크림빵, 바게트, 슬랩 등은 칼로리와 당류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단백질 함량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유통 채널 다각화도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자사몰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판매와 함께 오프라인 유통망 확장이 병행되며 채널 간 균형 성장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널담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매출 목표를 800억원으로 설정하고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K-푸드와 건강식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을 추진한다.

/신원선 기자

크라운해태, 전국 16개 도시서 국악공연

임직원 공연 '크라운해태 한음회'
오는 28일 광주시에서부터 시작

과자회사 임직원들이 국악 명인명창들과 함께 고객들을 직접 찾아 전국에서 국악 공연을 펼친다.

크라운해태제과는 올해 1년간 전국 16개 도시에서 임직원 국악공연 '크라운해태 한음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크라운해태 한음회는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으로 고객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국악인들과 무대를 꾸미는 전통 국악공연으로 2024년 시작됐다.

첫해는 대전과 대구에서 2회 열렸고 지난해에는 부산(2회), 광주, 대구에서 4번 공연했고, 해외(일본 오사카 엑스포 특별공연)에서도 공연했다. 지금까지 연인원 1200명이 무대에 올라 1만여명의 고객들을 만났다. 전석 해당 지역의 고객들을 초청해 임직원들이 고객사랑에 대한 감사를 직접 전하는 뜻 깊은 의미까지 담았다.

크라운해태제과는 올해부터 광역시를 중심으로 연간 4회 열렸던 임직원 국악 공연을 중소도시를 포함해 총 16회 공연으로 대폭 늘린다. 전문 예술인들 못지 않은 실력을 갖춘 임직원들과 국악인들로 구성된 공연단이 매달 1회 이상 지역 고객들과 전통음악으로 만난다.

크라운해태 한음회 공연은 오는 28일 광주광역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시작한다. 이어 2월 경주, 3월 전주, 4월 강릉을 찾아 공연하고 이후 주요 광역시와 중소도시를 찾아 전국 순회공연으로 16회 열린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사

◆ **한양대학교의료원** △경영지원실장 공상훈 선임부장

◆ **한양대학교병원** △운영지원국장 한현수 부장 △간호국장 양현 부장 △진료운영본부장 박재우 부장

부음

▲ 이창수(전 유도 대표팀 코치)씨 별세 = 20일,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3일 오전 8시, 장지 경기도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031-395-4438

이노비즈협회, '회원서비스 공모전' 회원사와 맞손

이노비즈협회가 '2026년 회원서비스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이데일리씨앤비, 옴니케어와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왼쪽부터)유영철 현대해상화재보험 상무, 안병현 옴니케어 상무,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오연근 이데일리씨앤비 상무, 김홍석 이노비즈협회 상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홈앤쇼핑, 급여 우수리 모아 1200여만원 기부

홈앤쇼핑이 임직원들이 지난해 급여에서 발생한 우수리 금액을 자발적으로 모아 기부하고, 회사가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을 더해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21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한 급여 우수리 기부금과 회사의 매칭 기부금 1200여 만원을 전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기부했다. /홈앤쇼핑

유한양행, 바자회 수익금으로 장애인 자립 지원

유한양행이 연말 바자회 및 경매에서 조성한 약 5000만원의 수익금을 장애인 자립을 위해 기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12월 23~24일 유한양행 본사와 연구소, 공장에서 바자회를 열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역대 최대 수익금을 기록했다. /유한양행

동아에스티, 공정거래자율준수 강화 선포식

동아에스티는 지난 20일 경기 광주 소재 곤지암 리조트에서 '공정거래자율준수(CP) 강화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정재훈 사장(사진)을 비롯해 경영, 영업, 연구, 개발, 생산 부문 본부장 및 실장과 영업 권역장, 전 부서의 관리자 등이 참석했다. /동아에스티

GS리테일, '무지개상자 런치 연주회' 성료

GS리테일이 이달 20일 서울 GS아트센터 로비에서 '2026년 무지개상자 런치 연주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주회는 GS리테일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무지개상자'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이날 무대에는 조익현 지휘자를 비롯해 '무지개상자 오케스트라' 소속 단원 40여 명이 올랐다. /GS리테일